

中日戰爭 初期 國民政府軍의 抗戰戰略과 戰術 再檢討(1937~1938)

기 세 찬*

1. 머 리 말
2. 盧溝橋事變의 발발과 國民政府의 대응
3. 全面戰 확대와 地域防禦의 실시
4. 南京陷落 이후 遲延作戰으로 전환
5. 맺 음 말

1. 머 리 말

중일전쟁(1937~1945)¹⁾은 중국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20세기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를 완전히 뒤바꾼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중·일

* 국방대학교 조교수

- 1) 중일전쟁(항일전쟁)사에서 전쟁의 기간에 대해 약간의 논쟁이 있다. 크게 전쟁의 시점을 1931년의 9·18사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1937년의 7·7사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9·18사변과 7·7사변을 연속 또는 비연속으로 보느냐의 시각차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전쟁을 일련의 전투와 전역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관점에서 1937년 7·7사변을 전쟁의 시점으로 보는 견해를 따랐다. 전쟁의 명칭과 기간에 대한 논쟁은 이승휘, 『抗日戰爭』, 서울대학교 동양사 연구실 편, 『강좌중국사』 Ⅷ, 서울: 지식산업사, 1989, pp.197~199 참조.

양국의 군사력의 차이, 산업기술의 우열, 그리고 전쟁의 피해 규모만을 따져보았을 때, 중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대체로 기존의 통설적 견해에 따르면, 중일전쟁에서의 중국의 승리는 미국의 참전, 국공 간의 항일민족통일전선 형성 등이 전쟁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아왔다. 하지만 실제 미군이 태평양 전역에 참전한 시기는 중일전쟁 발발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항일민족통일전선도 외적으로는 유지됐으나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전쟁 당시 일본군의 주요 상대이자 중국군의 주력이었던 국민정부군의 군사 전략을 재검토해 보는 것은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의 영역에서 중국의 전쟁 승리 원인을 경험적 사실들로부터 밝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중일전쟁사에 관한 연구는 중국의 개혁개방 전후를 기준으로 나누어진다. 대체로 1949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의 연구는 ‘敵後抗日遊擊戰爭’과 ‘敵後抗日遊擊根據地’에 집중되어 있었고, 국민정부군 ‘正面戰場’의 연구는 매우 경시되었다.²⁾ 그러다가 개혁개방 이후 국민정부군이 일본군의 속전속결전략을 저지한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제기되면서, 중국의 연구자들은 武漢함락 이전 국민정부군이 치른 전역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³⁾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쟁초기 국민정부군의 항전전략에 관한 대만과 중국의 평가는 상반된다. 대만에서의 연구는 전쟁초기 국민정부군의 전략이 일본군을 유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본군에게 유리한 북-남방향의 작전선을 불리한 동-서방향의 작전선으로 만들기 위해 공간으로 시간을 획득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⁴⁾ 반면, 중국에서는 국민정부군의 군사전략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2) 曾景忠, 『中國抗日戰爭正面戰場研究述評』, 『抗日戰爭研究』1993年 第3期, p.77.

3) 馬振犢, 『慘勝』(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2), p.10; 張憲文, 『中國抗日戰爭史』(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01), pp.10~14; 劉大年·白介夫 編, 『中國復興樞紐-抗日戰爭的八年』(北京: 北京出版社, 1997), pp.3~5.

4) 蔣緯國 總編, 『國民革命戰史』第3部 第3卷(台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78), p.9.

예를 들어 張憲文은 전쟁초기 정면전장에서 어떠한 속결전이나 외선작전 및 운동전과 진지전을 결합하는 등의 군사전략은 없었으며 단지 단순·소극적인 방어전략만을 실시했다고 주장한다.⁵⁾ 국민정부군의 전략·전술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평가가 근본적으로 중국과 대만의 정치적 문제에서 기인하겠지만, 역사학계에서 전략과 전술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국민정부군의 군사전략을 평가하는 것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쟁초기 국민정부군의 항전전략 연구에서 또 다른 문제점은, 대만이나 중국 심지어 한국의 연구자들까지도 모두 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전쟁초기 상해 확전의 타당성과 그 득실을 논하고는 있으나,⁶⁾ 華北·華東·華中 각 전역별로 작전형태와 그 차이를 분석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과 대만의 연구자들 모두 전쟁초기의 전체 국면을 묘사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각 전역별로 작전의 형태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일반적인 전쟁사 연구 관점에서 보아도 전장상황이 다른 화북·화동·화중전역에서 동일한 작전형태가 수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각 전역과 전투를 그것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 전역과 전투의 분석을 통해 그로부터 개념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전쟁초기 국민정부군의 항전전략과 전술을 분석해 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盧溝橋事變에 대한 국민정부의 초기대응과 전면전 준비과정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전면전 발발 이후 국민정부군의 작전목적과 부대운용 등을 통해서 화북과 화동에서의 국민정부군 전략·전술을 검토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 남경함락 이후 국민정부군의 전략·전술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각 전역별 국민정부군

5) 張憲文, 『中國抗日戰爭史』, p.14.

6) 蔣緯國 總編, 『國民革命戰史』 第3部 第1卷, p.3; 吳相湘, 『第二次中日戰爭史』(台北: 綜合月刊社, 1973), p.392; 余子道, 論抗日正面戰爭初期的戰略作戰方向問題, 『軍事歷史研究』 1999年 第1期, p.88; 孟彭興, 『蔣介石上海抗戰決策研究』, 『軍事歷史研究』 1994年 第1期, p.62; 박창희, 「중국의 전쟁수행 전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1, p.83.

의 작전을 친착하여 개념화시키는 것은 전쟁초기의 군사전략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중일전쟁사 연구에서 아직 시도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일정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盧溝橋事變의 발발과 國民政府의 대응

노구교는 北平 廣安門 서남쪽 永定河에 있는 다리로서 노구교의 平漢철도는 북평과 내지가 서로 통하는 유일한 교통로로 경제적·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다. 만약 일본이 이곳을 점령한다면 중국군은 북평으로 병력을 증원시킬 수 없게 되는데 비해 일본은 이 철도를 이용하여 화북으로 군대를 전개시켜 중국 북서부로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 당시 북평은 일본 관동군이 1936년 9월에 豐臺를 점령한 이후 삼면이 일본군에 포위된 형상이었으며, 단지 남쪽의 南苑과 서남방향의 노구교만이 宋哲元이 군장으로 있던 중국 제29군⁷⁾의 통제 하에 있었다.

1937년 7월 7일 밤 노구교 부근에서 몇 발의 총성과 함께 훈련 중이던 일본군 병사 1명이 실종되었다. 일본군은 이를 빌미로 8일 새벽 노구교 강상의 철교와 주변의 중국군 진지를 기습 공격하였다. 중국군도 이에 대응

7) 국민정부군의 군 편제는 병력 수와 편제에서 지금의 한국군과 다르다. 한국군의 사단급과 비슷한 규모의 부대는 師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상급 제대로는 兵團, 集團軍, 軍團, 軍이 있었고 師 이하로는 旅, 團, 營, 連, 排가 있었다. 국민정부군은 전쟁 중에 兵團과 軍團을 없애고 軍을 전략 단위로 삼았다(何應欽, 『抗戰時期軍事報告』, 『民國叢書』第二編 第32冊(上海: 上海書店, 1990), p.208). 그 결과 師 이상 제대로는 集團軍과 軍만 남게 되었다. 이것을 현재 한국군의 편제와 비교하면, 국민정부군의 集團軍, 軍, 師는 각각 한국군의 야전군, 군단, 사단과 동일한 규모이며, 師급 미만 旅, 團, 營, 連, 排는 각각 한국군의 여단, 연대(또는 단), 대대, 중대, 소대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민정부군의 團에 해당되는 편제가 한국군에도 있기 때문에 團급 이상 부대는 국민정부군의 편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그 이하 하급 부대는 편의적으로 한국군 부대 명칭으로 기술하였다.

하여 이날 내내 상호 간 공방전이 계속되었다.⁸⁾ 이 사건이 향후 8년간의 중일전쟁의 발단이 된 노구교사변으로 7월 7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7·7사변이라고도 부른다. 노구교사변 발발 당시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노구교사변이 발생했을 때, 제29군 군장 겸 기찰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지역의 군정을 담당하고 있던 송철원은 樂陵에서 휴가 중에 있었다. 사건 발생 직후 張自忠·馮治安·秦德純 등은 즉각 송철원에게 이 사건을 전보로 보고하였다. 송철원은 일본군이 완평성내에 포격을 가한 침략행위에 분노함과 동시에 사태가 급변함에 대해 놀라움과 불안을 표시하면서 바로 완평 주둔군에게 단호하게 “눈앞의 적을 섬멸하라”고 지시하였다.⁹⁾ 그러나 그는 사태가 확대되지 않고 가능하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장자충과 풍치안 등에게 보내는 전보에는 “반드시 마음을 진정시키고 기회를 보아 대처하여 위기를 피해야 한다. 지금 일본이 아직까지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다. 약간의 양보를 표시하여 가능하다면 국부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¹⁰⁾

9일 새벽 일본 특무기관장 겸 冀察政務委員會 고문 마쓰이 다쿠로(松井太一郎)도 기찰당국에 실종되었던 병사가 부대로 복귀하였는데 오해가 있었으므로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면서 쌍방의 정전을 요구하였다. 이후 북평에서 진덕순과 마쓰이 사이에 교섭이 진행되어 9일 새벽에 쌍방은 구두에 의한 정전 합의를 하였고, 11일에는 중국 측과 일본 측 사이에 ‘노구교사변 현지협정’이 체결되었다.¹¹⁾ 그러나 일본이 중국 지방정부와 현지협정

8) 何基澧 等, 『七七事變記實』, 黨德信 主編, 『七七事變-原國民黨將領抗日戰爭親歷記』(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86), pp.47~48.

9) 陳世松 主編, 『宋哲元研究』(成都: 四川省社會科學院出版社, 1987), p.222.

10) 何基澧 外, 『七七事變記實』, 黨德信 主編, 『七七事變-原國民黨將領抗日戰爭親歷記』, p.51.

11)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29군은 일본군에게 사과를 표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이러한 유형의 불행한 사건을 재발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② 중국군과 풍대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이 근접하여 사건을 일으키기가 쉬우므로 노구교 일대(城廂)에는 군이 주둔하지 않고 보안대가 그 치안을 유지한다. ③ 본 사건의 발단이 된 藍衣社·共產黨 및 기타 항일단체를 철저히 단속한다. 今井武夫, 『支那事變の回想』(東京: みず書房, 1980(1964 初版)), p.29.

을 체결한 이유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보다는 화북 일본군의 전력을 증원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당시 駐在 무관인 이마이 타케오(今井武夫)는 그의 회고록에서 “일본이 현지협정을 체결한 이유는 당시 일본군이 처한 전략적 상황이 불리하고 위험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증언하였다.¹²⁾

문제는 이러한 일본의 행동을 그대로 믿었던 송철원에게 있었다. 그는 천진에 도착한 후 상황이 이미 완화된 국부적인 해결이 실현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7월 12일 그는 “이번 노구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동아시아의 불행이지만 국부적인 충돌은 언제나 해결될 수 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¹³⁾ 그리고 그는 예하부대에 14일부로 계엄령을 해제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일본 측에도 통보하였다.¹⁴⁾ 14일에는 張自忠·齊燮元·陳覺生이 송철원의 대표로 일본화북주둔군 참모장 하시모토 군(橋本群)과 회담하였다. 기찰당국은 즉각적인 철병과 항일분자의 단속, 노구교 주둔군 대대장을 처벌할 것에 동의하였다. 이후 진덕순이 중국 측 대표로 일본 측에 사과하였고, 북평성의 방어는 노구교에서 적극적으로 대항했던 제37사에서 제38사로 대체되었다.¹⁵⁾

이렇듯 송철원이 일본과의 타협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실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었다. 7월 8일 아침 사건 소식을 처음 접한 일본 육군중앙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두 개로 나누어졌다. 하나는 참모본부의 作戰課·支那課 및 육군성의 軍事課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로 병력을 급파하여 중국 측에 일격을 가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나아가 화북을 제2의 만주국화하자고 하였고, 다른 하나는 작전부장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를 위시한 참모본부의 戰爭指導課와 육군성의 軍務課를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 對蘇 군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단은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자고 주장했다.¹⁶⁾ 쌍방의 토론은 8일 야간에 불확대방침 쪽으로 결정

12) 同上書, p.30.

13) 何基禮 外, 『七七事變記實』, 黨德信 主編, 『七七事變-原國民黨將領抗日戰爭親歷記』, p.51.

14)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支那事變陸軍作戰』 1(東京: 朝雲新聞社, 1975), p.191.

15) 同上書, p.192.

16) 歷史學研究會 編, 『太平洋戰爭史』 2, 『日中戰爭』 I(東京: 青木書店, 1972), p.300.

되어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지나주둔군사령관에게 “사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인 무력행사를 피하라”(臨命第400号)는 명령을 하달함으로써¹⁷⁾ 토론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 불확대파가 꺾이고 강경파가 사태를 주도하게 되었다. 7월 11일 일본 수상관저에서 열린 5상회의에서 일본 본토 3개 사단, 조선 1개 사단, 만주 2개 여단의 중국파병이 결정되어 우선적으로 조선과 만주 부대에 대한 화북출동명령이 하달되었다. 16일에는 추가로 육군 10만 명과 공군 18개 편대의 중국 파병이 결정되었으며, 17일에 개최된 5상회의에서는 일본군 40만 명을 동원하여 중국으로 진격할 것이 최종 결정되었다.¹⁸⁾

노구교사변이 발생했을 때, 국민정부 행정원 원장 겸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장개석과 중앙정치회의 주석 왕정위는 江西省 廬山에서 중국국민당 하계훈련단을 주최하고 있었다. 장개석은 7월 8일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일련의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지만, 장개석 본인도 일본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당시 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왜구가 노구교에서 도발했다. 그들이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틈을 타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송철원을 난처하게 하여 화북을 독립시키려 하는 것인가. 일본이 도전한 이상 이제 응전을 결의해야 할 때일 것이다.¹⁹⁾

장개석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사건의 중차대함을 직감하고 일련의 대응조치를 취했다. 그는 당일 바로 송철원에게 사태의 확대에 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劉峙와 徐永昌에게 각각 開封 이서부대 중 먼저 1개 사를 파견하여 황하 이북으로 이동시키고, 開封·鄭州에

17)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支那事變陸軍作戰』 1, p.155.

18) 藤原彰 著, 엄수현 譯, 『日本軍事史』(서울: 시사일본어사, 1994), pp.228~229.

19) “蔣介石日記”(1937. 7. 8), 産經新聞社, 『蔣介石秘錄』(東京: 産經出版, 1985), pp.197~198; 張秀章 編著, 『蔣介石日記』 下(北京: 團結出版社, 2006), p.504.

차량을 집결시켜 2개 사 이상의 부대가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龐炳勳 부대는 正太路 방면에서 石家莊으로 진출해 협동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²⁰⁾

7월 9일 장개석은 추가로 제26군 2개 사를 석가장 또는 보정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제40군 및 제84사 高桂滋 부대는 석가장에 집결하도록 지시하였다.²¹⁾ 동시에 장개석은 현지군의 동요를 막기 위해 제29군과 고향에 있던 송철원에게 이러한 중앙정부의 부상과병 결정을 통보하였다.²²⁾ 또한 장개석은 四川에 있는 군정부장 何應欽에게 즉시 남경으로 돌아가 전면항전에 대비하여 군의 재편에 착수하도록 지시하면서, 徐永昌, 程潛, 唐生智 등에게는 제21·제25사를 동원 후 출동시키고, “각지에 계엄령을 내리고 선전포고 절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²³⁾ 이어 10일에 그는 전국의 각 부대 및 행정기관에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다.

일본군이 도발하여 일본군과 우리 29군이 완평 부근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다. 지금 예하 기관에 명령을 내려 모두 경비를 강화하고 항전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제26군 2개 사를 출동시켰고, 제40군 및 제85사 각 부대를 신속하게 보정과 석가장으로 이동시켜 지원에 대비하였다. 이 외에 제21·제35 2개 사를 계속해서 문전에 기록된 곳으로 이동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방금 보고에 의하면 쌍방이 철병하여 담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인은 교활하여 속셈을 헤아릴 수 없다. 전국 각 지방의 각 부대는 거듭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조금도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만일에 대비하여야 한다.²⁴⁾

20) “蔣介石致宋哲元庚電”, “蔣介石致劉峙電”, “蔣介石致徐永昌等庚電”(1937. 7. 8), 章伯鋒·庄建平 主編, 『抗日戰爭』軍事 第2卷(成都: 四川大學出版社, 1997), pp.56~57. 이하 『抗日戰爭』으로 약칭.

21) “蔣介石致孫連仲佳電”(1937. 7. 9),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中華民國史檔案資料匯編』第五輯 第二篇 軍事(二)(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8), p.2.

22) “蔣介石致宋哲元佳電”(1937. 7. 9), 同上.

23) “蔣介石致徐永昌青電”(1937. 7. 9), 『抗日戰爭』軍事 第2卷, p.59.

24) “蔣介石致各行營·綏署及各省市灰電”(1937. 7. 10), 同上書, p.60.

이상에서 노구교사변 발발 직후 장개석과 국민정부의 대응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국민정부군 수뇌부가 중국과 일본 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그것은 화북의 국지적인 충돌로부터 야기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37년 초에 작성된 국민정부군의 작전계획에는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도발한다면 분명 화북의 국지적 사건을 계기로 시작할 것”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²⁵⁾

한편, 7월 11일 ‘노구교사변 현지협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일본정부가 본토의 3개 사단과 관동군 및 조선군 제20사단의 화북파견을 결정하자, 국민정부는 7월 12일 군사 징발령을 공표하였고, 같은 날 일본정부에 화북에 관한 지방당국의 협약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요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통보하였다.²⁶⁾ 또한 국민정부는 북평방어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장개석은 황하 이북에 주둔하고 있던 商震의 4개 단을 석가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였고, 孫連仲의 제26군과 龐炳勳의 제40군은 모두 북평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송철원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²⁷⁾

위와 같은 사실들에서 우리는 장개석이 노구교사변 초기 국민정부군 중앙군을 신속히 북상시키는 한편 송철원을 설득시켜서 추진된 중앙군과 송철원 부대와의 협동작전을 통해 북평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국민정부의 조치들은 국민정부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의 무력침략에 대비한 전쟁준비를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국민정부는 이와 같은 군사적 조치와 더불어 각계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여산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담화 회의에는 중국 각 당파와 단체의 대표, 학자 및 유명인사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²⁸⁾ 장개

25) “民國26年度作戰計劃(甲案)”, 中國第二歷史檔案館, 『抗日戰爭正面戰場』上(南京: 鳳凰出版社, 2005(第2版)), p.3. 이하 『抗日戰爭正面戰場』으로 약칭.

26)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支那事變陸軍作戰』1, p.182.

27) “蔣介石致宋哲元錄電”, “蔣介石致徐永昌青電”(1937. 7. 17), 『抗日戰爭』軍事 第2卷, p.64.

28) 劉建清·王家典·徐梁伯, 『中國國民黨史』(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2), p.437.

석은 여기에서 역사적인 '여산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는 7월 17일 "만일 정말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고비(關頭)에 이르렀다면 우리에게는 당연히 희생만이 있을 뿐이며 항전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단지 應戰이지 싸움을 추구하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²⁹⁾ 이에 대한 일본 육군중앙부의 반응은 강경론이 지배적이었다. 일본 육군참모본부는 20일 아침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무력행사를 통해 사태를 해결한다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³⁰⁾

한편, 현지 책임자인 송철원은 일본이 이와 같이 무력행사방침을 결정하고 있는 동안에도 일본과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18일 일본 화북주둔군 사령관 타시로 칸이치로(田代皖一郎)의 장례식을 기회로 신임 주둔군 사령관 가즈키 키요시(香月清司)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가즈키와의 만남에서 대화가 잘되어 평화해결에 문제가 없다"라고 언급했다.³¹⁾ 19일 북평으로 돌아온 송철원은 일본 측에 성의를 표시하기 위해 북평성 내의 방어 구축물들을 철거하고 성문을 열라고 지시하였다.³²⁾ 그리고 20일에 그는 駐在 무관 이마이 타케오(今井武夫)를 만나 북상하는 중국군을 보정 이남에서 정지시키고 그 전진을 막겠다는 서약까지 했다.³³⁾

송철원이 이와 같이 북평의 방어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자, 장개석은 7월 22일 송철원에게 "38사가 진지에서 철수하였고, 북평성 안의 방어공사도 이미 철거하였다고 들었다. 사실이라면 왜구는 우리가 북평 성문을 평소처럼 통행하는 것을 기다려 반드시 더 많은 요구를 하거나 아예 북평성

29) 이 담화는 19일에 정식으로 공표하였고, 노구교사변에 대한 다음과 같은 4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① 어떠한 해결도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무결(完整)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 冀察의 행정조직은 비합법적인 어떠한 변경도 용인할 수 없다. ③ 중앙정부가 파견한 관리-예를 들면 기찰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철원 등-누구도 교체할 수 없다. ④ 제29군의 현 주둔지는 어떠한 구축도 받지 않는다. 蔣總統思想言論集編集委員會編, 『蔣總統思想言論集』 卷14(台北: 蔣總統思想言論集編集委員會, 1966), p.3.

30)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支那事變陸軍作戰』 1, pp.205~206.

31) 何基禮 外, 『七七事變記實』, 黨德信 主編, 『七七事變-原國民黨將領抗日戰爭親歷記』, p.52.

32) 陳世松 主編, 『宋哲元研究』, p.223.

33) 今井武夫, 『支那事變の回想』, p.34.

을 점령해 버릴 것이므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즉각 엄중히 방어하고 조심하여 그러한 책동을 못하게 하라”는 전보를 보냈다.³⁴⁾ 그러나 송철원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때에 7월 25일 북평-천진 중간의 낭방과 7월 26일 북평 성문의 하나인 광안문에서 중·일 양군의 충돌이 발생했다. 일본 지나주둔군은 26일 저녁 낭방사건을 이유로 “노구교와 八寶山에 배치된 제36사단을 27일 정오까지 장신점 부근으로 철수시키고, 북평성 내에 있는 제37사단과 西苑에 있는 제37사단 부대를 28일 정오까지 영정하 이서지역으로 이동시키며 이후에 계속해서 이들 부대들을 보정 방면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일본군은 독자적 행동을 취하겠다”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송철원에게 보냈다.³⁵⁾

이 통보를 받은 송철원은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일본군에 대항할 결심을 하였다. 그는 27일 북평성방사령부를 설립하여 張維藩을 城防司수로 임명하고, 성 방어부대를 배치하여 북평 고수를 준비하였다. 이날 저녁에 戈定遠을 보정에 보내어 孫連仲·萬福麟 등의 부대의 복상을 도와 작전에 협조토록 하였다.³⁶⁾ 그러나 이때에는 이미 현지에 일본군의 화북 증원부대가 거의 도착한 상태였다. 화북지역의 일본군은 마침내 7월 28일 아침을 기해 북평·천진지역의 중국군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1937년 7월 7일 몇 발의 총성으로 발생한 노구교사변은 화북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34) “蔣介石致宋哲元齊電”(1937. 7. 22), 『抗日戰爭』軍事 第2卷, p.65.

35) 今井武夫, 『支那事變の回想』, p.36.

36) 左雙文 等著, 『困境中的突圍』(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p.206.

3. 全面戰 확대와 地域防禦의 실시

(1) 華北의 前方防禦

전쟁초기의 전략적 방어는 먼저 華北에서 시작되었다. 화북은 현재 중국의 北京市를 포함 河北省, 山西省, 山東省, 河南省 4개 省에 걸쳐 면적이 약 70만km²에 달하는 지역이다. 이곳은 중국 문명의 발상지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당시 인구나 농업생산량 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화북지방에 대한 침략행위는 정치·군사·경제적인 면에서 국민정부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국민정부군 수뇌부는 이미 노구교 사변 발발 이후 화북에 대한 전반적인 방어계획을 토의하여 왔고, 7월 26일에는 화북 방어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결정된 안은 滄(縣)-保(定)선 부대는 영정하 일대로 추진시켜 북평을 증원토록 하고, 후방의 중앙군 주력은 滄-保선 부근으로 전개시켜 화북을 방어한다는 것이었다.³⁷⁾ 또한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화북으로 남하하는 일본군 배후를 위협할 목적으로 북평 북서쪽 平綏線 방면의 작전을 계획하였다. 작전목적은 이 지역의 15개 사·9개 여 병력을 차하얼성으로 진입시켜 차하얼의 남북지역을 방어하여 관동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한편, 平·津의 일본군 측후방을 위협하여 일본군이 평한·진포철도로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다.³⁸⁾

당시 일본군은 화북에서 대규모 전투를 진행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킨다는 본국의 전쟁방침에 따라 본토로부터 증원된 병력을 평진 지역에 집결시킨 후 하북성 중부에 대한 남하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탕은백의 제13군이 南口를 선점하여 측후방의 위협이 심각했기 때문에 일본군

37) 『抗日戰爭正面戰場』上, p.263.

38) 군사위원회는 8월 1일 傅作義를 제7집단군 총사령, 劉汝明을 부총사령, 제13군 군장 탕은백을 이 집단군의 '前敵總指揮'로 삼아 차하얼로 이동을 지시했다. 蔣緯國 總編, 『國民革命戰史』第3部 第4卷, p.7.

은 보정 방면의 작전을 일단 보류하고 독립혼성 제11여단과 제5사단을 남구로 진격시켜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³⁹⁾

남구로부터 居庸關 연선을 방어하고 있던 탕은백의 제13군은 8월 8일부터 이 방면으로 진군하는 일본군과 교전을 시작하였고, 일본군의 진출을 강력하게 저지한 결과 이곳의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다.⁴⁰⁾ 이때 국민정부군은 평한선의 부대를 평수선으로 이동시켜 남구 지역의 일본군을 섬멸하고 평진으로 반격할 계획을 세웠다. 제2집단군 총사령 劉峙는 장개석에게 그의 주력을 북평으로 전개시켜 남구의 부대와 협동으로 북평의 일본군을 공격하겠다고 건의하였다.⁴¹⁾ 장개석은 이를 승인하였고, 8월 19일 석가장행영 주임 徐永昌과 제2집단군 유치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하였다.

衛(立煌)의 부대를 이미 북진시켰다. 평한로와 진포로 양군은 전일 徐(永昌)주임이 계획한 방안대로 여러 路에서 유력한 부대 일부를 차출하여 평한로로 공격 전진시켜 적군의 선두와 후미가 서로 협조하지 못하도록 하여 衛의 부대가 임무를 달성하도록 하라. 만약 진포로 상의 부대가 출동하지 못하게 되면 평한로 상의 부대라도 단독으로 전진시켜라.⁴²⁾

위 사료는 국민정부군이 단순히 진지방어전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북평의 일본군을 남북에서 공격하여 최종적으로 북평을 수복하겠다는 반격작전도 구상했음을 보여준다. 비록 이 계획은 일본군이 남구를 조기에 점령함으로써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그 전략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민정부군의 전략의도는, 중국의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속결전이나 외선작전 및 운동전과 진지전을 결합하

39)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 『支那事變陸軍作戰』 1, p.231.

40) 『抗日戰爭』軍事 第2卷, p.122.

41) “第二集團軍總司令劉峙呈蔣委員長協同南口方面友軍攻略北平所擬定該集團軍作戰計劃”,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對日抗戰時期』第二編 作戰經過(二)(台北: 中央文物供應社, 1981), p.124. 이하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으로 약칭.

42) “蔣委員長致石家莊行營主任徐永昌第二集團軍總司令劉峙指示衛路軍北進我平漢津浦兩路軍向平津路攻擊前進手令”, 同上書, p.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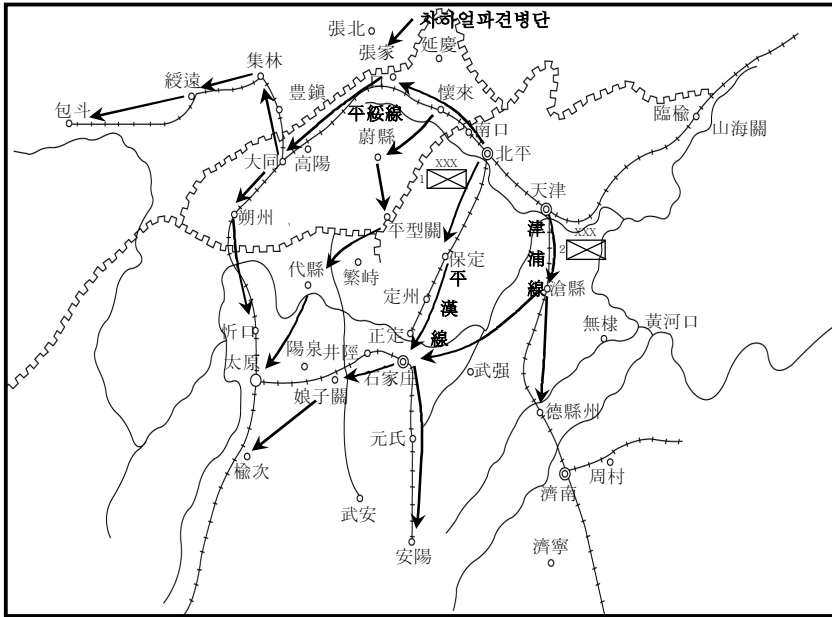
는 등의 군사전략은 없었다⁴³⁾라고 하는 주장과는 상반되기 때문이다.

한편, 8월 16일에 南口鎮이 일본군의 수중에 떨어지자 일본군은 이 지역에 제5사단의 병력을 증원시켰다. 탕은백은 부대배치를 재조정하고 지형을 이용하여 일본군의 공격을 저지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장개석은 바로 위립항과 염석산으로 하여금 탕은백 부대를 지원토록 지시했으나, 증원부대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 탕은백 부대는 고립되었다. 결국 8월 25일 거용관이 함락 당하자 탕은백은 26일 그의 전 부대에 퇴각명령을 내렸다.⁴⁴⁾ 탕은백 부대는 이 지역의 작전에서만 2만 6,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탕은백 부대가 무너지자 이 지역의 다른 부대들은 빠르게 와해되었다. 부작의와 유여명은 탕은백 군이 붕괴됐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서둘러 퇴각했다. 일본군은 평수선 작전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곧바로 平漢·津浦線작전을 감행했다.

平漢線은 북평에서 漢口까지 이어진 철도로 화북에서 화중에 이르는 중국 남북교통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다. 이 철로 선상에 있는 保定, 石家莊, 安陽 등은 평한선의 요충지로 화북 국민정부군의 주력이 위치해 있었다. 만약 국민정부군이 평한선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중앙군을 포함해 貴州·廣東·廣西에 있던 지방부대를 화북으로 증원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황하 선으로 후퇴하여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일본군이 이곳의 국민정부군을 격멸하고 평한선을 통제하게 된다면, 일본군은 대규모의 병력과 보급품을 화북에서 화중으로 수송할 수 있는 병참선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쟁초기 평한선의 확보는 중국과 일본 양측에게 모두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43) 張憲文, 『中國抗日戰爭史』, p.14.

44)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第二編 作戰經過(二), p.104.



〈그림 1〉 華北 전역

일본군은 화북의 작전지휘를 통일하고 중국에 대한 전쟁을 확대하고자 지나주둔군을 북지나방면군으로 개편하고 테라우치 히사이치(寺內壽一)를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일본군 중앙통수부는 차하얼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9월 4일 예하부대에 보정작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일본군의 작전개념은 중점정면인 평한선을 따라 남진하는 제1군 3개 사단(+)은 보정 방향으로 정면공격을 수행하고, 제2군 3개 사단(+)은 창현을 점령한 후 보정 방향으로 우회하여 보정에 있는 중국군을 포위 섬멸한다는 것이었다.⁴⁵⁾

한편,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남구와 북평이 이미 점령당했기 때문에 8월 20일 화북 방어계획을 수정하여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군사위원회가 결정한 화북방어의 중점은 保定-滄縣을 주요 방어선으로 삼고, 安陽-濟南선을 제2선, 洛陽-鄭州-開封-徐州-淮陰을 제3선으로 하여 축차적으로 일본군

45) 秦郁彦, 『日中戰爭史』(東京: 河出書房新社, 1972(增補改訂版)), p.276.

을 방어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군사위원회는 진포·평한철도 북쪽 구간과 하북 중부지역에 제1전구의 10개 군(29개 사)을 투입했는데, 유치의 제2집단군은 평한선 방면을, 송철원의 제1집단군은 진포선 방면을, 위립황의 제14집단군은 산서·하북 방면을 담당하도록 했다.⁴⁶⁾

8월 하순 일본군은 평한·진포로 방면으로 공격을 개시하였다. 정면에서 진격했던 일본군은 9월 17일 琉璃河를 점령하여 중국군 제1방어선을 돌파하였고, 24일에는 보정을 점령했다. 일본군의 원래 계획은 평한선 방면의 제1군이 정면공격을 하는 동안 제2군이 창현으로 우회하여 보정 방면의 중국군을 포위 섬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평한선 방면의 유치의 제2집단군과 진포선 방면에 있던 송철원의 제1집단군 주력이 일본군과의 결전을 회피하여 철수하였기 때문에 보정에서 중국군을 포위섬멸하려고 했던 일본군의 작전은 성공하지 못하게 되었다.⁴⁷⁾ 일본군은 보정·창현을 점령한 후 제2군의 제108사단을 평한선으로 증원하여 제1군의 3개 사단과 함께 석가장 방면으로 공격하여 10월 10일 석가장을 점령하였다.⁴⁸⁾ 이로써 평한·진포선 방면의 작전은 일단락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민정부군은 평한·진포선작전에서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지방군의 지휘통제상의 문제였다. 장개석은 본래 제6전구 창설시 부대 지휘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송철원(제1집단군)과 한복구(제3집단군)의 옛 상관인 풍옥상으로 하여금 제6전구를 지휘하도록 했으나 예상과 달리 송철원과 한복구는 풍옥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임의대로 작전을 수행했다.⁴⁹⁾ 상급부대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이들만이 아니었다. 당시 국민정부군 제2사 師長으로 작전에 참가했던 鄭洞國에 따르면, 9월 중순 徐水·遂城선에 도달한 일본군이 滿城·漕河·新安 방어선의 중국군을 공격하려 할 때, 손연중의 제26군은 저

46) “大本營頒國軍作戰地圖訓令稿”(1937. 8. 20), 『抗日戰爭正面戰場』上, pp.43~44.

47) 秦郁彥, 『日中戰爭史』, p.277.

48)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支那事變陸軍作戰』1, p.364.

49) 張憲文, 『中國抗日戰爭史』, p.309.

항하지 않고 임의로 후방으로 퇴각했고, 제52군 군장 關麟征 역시 상급부대에 보고 없이 부대를 보정 이남으로 철수시켜 버렸다.⁵⁰⁾ 의심할 여지없이, 이러한 지방군의 독단적인 행동은 국민정부군의 전반적인 화북 방어작전에 치명적이었다.

한편, 산서방면의 일본군은 大同을 점령한 후 同蒲선을 따라 남하하여 9월 중순까지 雁門關 등의 內長城 각 관문에 도착하였다. 이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고 있던 염석산은 제2전구의 부대를 집결시켜 내장성의 平型關-雁門關-神池를 연결하는 선에서 일본군을 방어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군⁵¹⁾의 산서 병력은 28만여 명으로, 이때 처음으로 중국공산당군인 제18집단군 예하 제115·제120사가 출동하여 내장성의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⁵²⁾

9월 21일부터 일본군 제5사단은 평형관으로 공격을 시작했다. 염석산은 애초 평형관에서 일본군을 저지하려 했으나 평형선 방어선이 돌파 당하자 예하부대를 혼구지역의 제2방어선으로 철수시켰다.⁵³⁾ 일본 북지나방면군은 제5사단과 관동군 2개 사단을 증원하여 10월 6일부터 혼구진에 있는 중국군 주요방어지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⁵⁴⁾ 이때 중국군 제2전구는 피해가 컸지만 산지 지형을 이용해 일본군의 공격을 적극 저지하였다.

당시 일본군은 상해와 산서에서 격전을 치르고 있었으므로 예비대가 부족해서 산서에 추가적인 병력을 증원할 형편은 되지 못했다. 장개석은 일본군이 평한·진포선 방면의 일부병력을 산서로 전환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한복구에게 제3집단군 주력으로 일본군 후방을 교란시켜 창현·보정 방면의 일본군이 산서지역으로 증원될 수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⁵⁵⁾ 그러나

50) 『抗日戰爭』軍事 第2卷, pp.145~147.

51) 산서작전에는 중국공산당군도 참여했기 때문에 국민정부군 대신 중국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52) 劉大年·白介夫 編, 『中國復興樞紐-抗日戰爭의 八年』, pp.30~31.

53) 『抗日戰爭正面戰場』上, pp.37~38; 陳小功, 『抗日戰爭中的國民黨戰場』(北京: 解放軍出版社, 1987), pp.31~32.

54) 秦郁彥, 『日中戰爭史』, p.277.

55) 張憲文, 『中國抗日戰爭史』, p.309.

한복구는 자신의 직속부대의 피해를 우려해 장개석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결국 장개석이 우려했던 대로 석가장을 점령한 일본군은 곧바로 제1군 소속의 제20사단을 낭자관으로 증원시켰다. 이 부대는 井陘을 경유 正太線을 따라 산서 동쪽으로 진격하여 26일에 낭자관을 점령하고 계속해서 제2전구 우측면에 위치한 榆次를 공격했다. 일본군에 측면이 노출당한 제2전구는 혼구 방어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11월 2일부터 서남방향으로 철수하였다. 중국군이 후퇴하자 일본군은 추격을 계속하여 交城·平遙선까지 진출하였고, 산서작전은 일단락되었다.

이상에서 화북전역의 전투경과를 평수선, 평한·진포선, 산서작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방어의 형태는 '地域防禦'와 '機動防禦'로 나뉘며, 그 수행방법에 따라 지역방어는 다시 '前方防禦'와 '縱深防禦'로 구분된다. 교리상의 정의에 따르면, 지역방어는 방어에 유리한 지형에 주 전투력을 운용하여 적의 접근을 저지 및 격퇴하는 방어작전의 형태이고, 기동방어는 주전투력을 동적으로 운용하여 적 주력을 계획된 지역으로 유인, 격멸하는 방어작전 형태이다.⁵⁶⁾ 이러한 개념에 비추어 보면, 화북에서 중국군의 작전형태는 주 전투력을 동적으로 운용했다기보다는 유리한 지형을 이용한 방어작전을 실시했기 때문에 지역방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화북에서 중국군이 중심 상에 방어선을 구축해서 방어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화북 방어작전을 지역방어의 형태면에서 중심방어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방방어는 전투지역전단 부근의 방어에 유리한 지역에서 작전을 실시하는 것이고, 중심방어는 방어의 중심을 이용하여 결정적작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화북전역에서의 중국군 방어형태는 전방방어로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록 중국군이 화북에서 축차적인 방어선(화북 3선, 산서 2선)을 계획했지만, 그 목적이 방어선상의 중심에서 결정적작전을 수행하려 했다기보다는 각 방어선별로 독립적으로 전투지역 전단에서 결정적작전을 추구하려 했기 때문이다.

56) 육군본부, 『전술』(대전: 육군본부, 2005), p.6, p.8.

실제 중국군의 화북 방어작전은 계획에 비해 효율적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중국군이 수적으로 우세하였으나 대부분이 지방군으로써 훈련·장비 면에서 일본군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졌고,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일부 지방군 지휘관들이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략적인 면에서 중국이 꼭 실패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군은 작전의 전반을 통해 거의 압도적인 우세를 유지했지만, 전쟁초기 일격으로 중국군을 격파하여 3개월 만에 중국을 석권하겠다는 일본의 의도는 달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華東의 攻勢的防禦

전쟁초기 상해전투는 중일전쟁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전쟁의 주요 전장을 화북에서 화동으로 전환시킨 상해전투는 군사전략상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은 어떤 배경 하에서 발생했으며 전쟁 전반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상해전투의 전략적 득실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만과 중국 역사학계의 평가는 상반된다. 대만의 吳相湘·蔣緯國 등은 상해전장의 확대는 국민정부군의 의도된 전략으로 일본군에게 유리한 북-남방향의 작전선을 동-서방향의 불리한 작전선으로 만들어 공간을 내주고 시간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⁵⁷⁾ 반면, 余子道·張憲文 등을 비롯한 중국 연구자들은 화북에 투입하기로 했던 대규모 주력부대를 화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오히려 화북 제1선 병력이 부족해져 평안·진포로 북쪽의 방어가 약해졌고, 또한 산서전역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등의 상해 확대전략의 실패를 강조한다.⁵⁸⁾ 이하 본문에서 이러한 의문점을 규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해작전을 분석해 보겠다.

57) 蔣緯國 總編, 『國民革命戰史』 第3部 第1卷, p.3; 吳相湘, 『第二次中日戰爭史』, p.392.

58) 余子道, 『論抗日正面戰爭初期的戰略作戰方向問題』, 『軍事歷史研究』, p.88; 張憲文, 『中國抗日戰爭史』, p.296; 孟彭興, 『蔣介石上海抗戰決策研究』, 『軍事歷史研究』 1994年 第1期, p.62.

노구교사변 후에 상해의 형세는 나날이 긴장되어 가고 있었다. 상해는 당시 중국의 상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상해가 일본에 점령당한다면 국민정부의 항전역량에는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노구교사변 초기 일본이 전면불확대방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장개석은 일본이 1932년 1·28사변을 답습하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다. 장개석은 7월 13일 상해 시장 俞鴻均과 경호사령 楊虎에게 상해 중심지역의 방어진지공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는지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⁵⁹⁾ 유흥균 상해시장은 주력부대가 위치한 곳과 중앙에서 지시한 상해시 중심지의 제1기공사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다.⁶⁰⁾ 이를 통해서 노구변사변 발발 직후 국민정부가 이미 일본군의 상해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평한·진포선을 점령한 후 남북에서 협공해 중국을 완전히 굴복시키고자 했다. 7월 16일 일본 해군 제3함대 사령관 하세가와 키요시(長谷川清)는 동경에 ‘對지나작전 용병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그는 “무력을 사용한 日支관계의 현상 타개 대책은 지나 응징, 즉 현 지나 중앙세력의 굴복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적의 급소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상해와 남경을 제압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하면서 일본 육군 5개 사단을 상해로 파견하여 화중작전을 진척시켜 상해를 확보한 후 남경을 공략하자고 했다.⁶¹⁾ 이러한 해군의 요구에 부합하여 일본 참모본부는 7월 29일 청도와 상해를 차후작전목표로 설정하는 對中작전계획을 작성하였다.

전쟁초기 국민정부는 일본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京滬경비총사령 張治中이 8월 9일 장개석에게 “일본군이 상해 병력을 증원시키고 있다. 기존의 해군육전대 5,000명에 재향군인 3,000명과, 지원병 3,500명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일본 해군 9척이 장강상류를 경유 상해에 도착하였는데 해군육전대 3,000여 명을 싣고 왔다”라고 보고하였다.⁶²⁾ 장치중의 보고를 받은 국민정부는 상해에서 일본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

59) 『抗日戰爭』軍事 第2卷, p.210.

60) 同上書, p.211.

61) 白井勝美·稻葉正夫, 『日中戰爭』2, 『現代史資料』9(東京: みすず書房, 1964), p.186.

62) 『抗日戰爭正面戰場』上, p.327.

다는 점을 확신하고, 일본군의 기습을 방지하기 위해 8월 11일 장치중에게 예하부대를 상해 부근으로 추진 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지시를 받은 장치중은 당일 심야에 예하부대들을 상해시 부근으로 이동시켰다.⁶³⁾ 이러한 조치로 중국은 일단 상해에서 일본군의 기습에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민정부의 중앙군까지 상해로 증원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군은 국민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8월 13일 오전 상해지역의 중국군 진지에 기습공격을 감행했다. 일본군 해군육전대 1개분대가 먼저 橫濱路·寶興路 지역에서 공격을 실시하였고,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八字橋·天通庵·寶興路·寶山路 일대를 공격하였다. 동시에 황포강상의 일본 군함도 포격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약 3개월에 걸친 상해 공방전이 발생하게 되었다. 일본군이 상해에서 선제공격을 했으나 국민정부군이 미리 대비하고 있었고, 또한 일본 본토의 증원군도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는 중국에게 유리하였다. 실제로 일본 증원군이 본토에서 상해에 도착하기까지는 10일간의 여유가 있었다. 장개석은 일본 증원군이 도착하기 이전에 상해에서 일본군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하고, 예하부대에 上海와 杭州의 일본군에 대한 총공격명령을 하달하였다.⁶⁴⁾

중국군은 8월 15일 여명을 기해 일본군에 대한 공세이전작전을 개시하였다. 중국군은 八字橋·持志大學·滬江大學 등의 지역과 일본 해군 훈련장 등의 거점을 신속하게 탈취했다. 이후 며칠 동안 순조롭게 작전이 진행되어 21일까지 국민정부군 부대는 匯山埠頭까지 진출했으나 현지 일본군을 모두 격멸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일본군의 방어진지가 견고하였고, 또한 일본 군함의 지원과 엄호가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상해에서 예상외로 중국군의 강력한 방어와 역습에 직면한 일본군 중앙통수부는 8월 15일 편조한 상해파견군 제3·제11 2개 사단과 기타부대들을 해군과 합동으로 상해에 파병하도록 지시했다.⁶⁵⁾

63) 8월 13일 밤에 장개석은 장치중을 제9집단군사령관으로, 張發奎를 제8집단군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張治中, 『張治中回憶錄』上(北京: 文史資料出版社, 1985), p.117, pp.121~122.

64) 張憲文, 『中國抗日戰爭史』, p.265.

65) 歷史學研究會 編, 『太平洋戰爭史』3, 『日中戰爭』Ⅱ, p.22.

한편, 장개석도 상해의 진장상황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8월 16일 陳誠과 熊式輝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진성과 웅식휘는 당시 일본군의 상륙부대가 중국군에게 포위되어는 있으나, 중국군의 병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예비대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공격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0일 남경으로 돌아온 웅식휘와 진성은 각자의 의견을 장개석에게 보고하였다. 웅식휘는 “더 이상 공격할 수 없다”라고 보고하였고, 진성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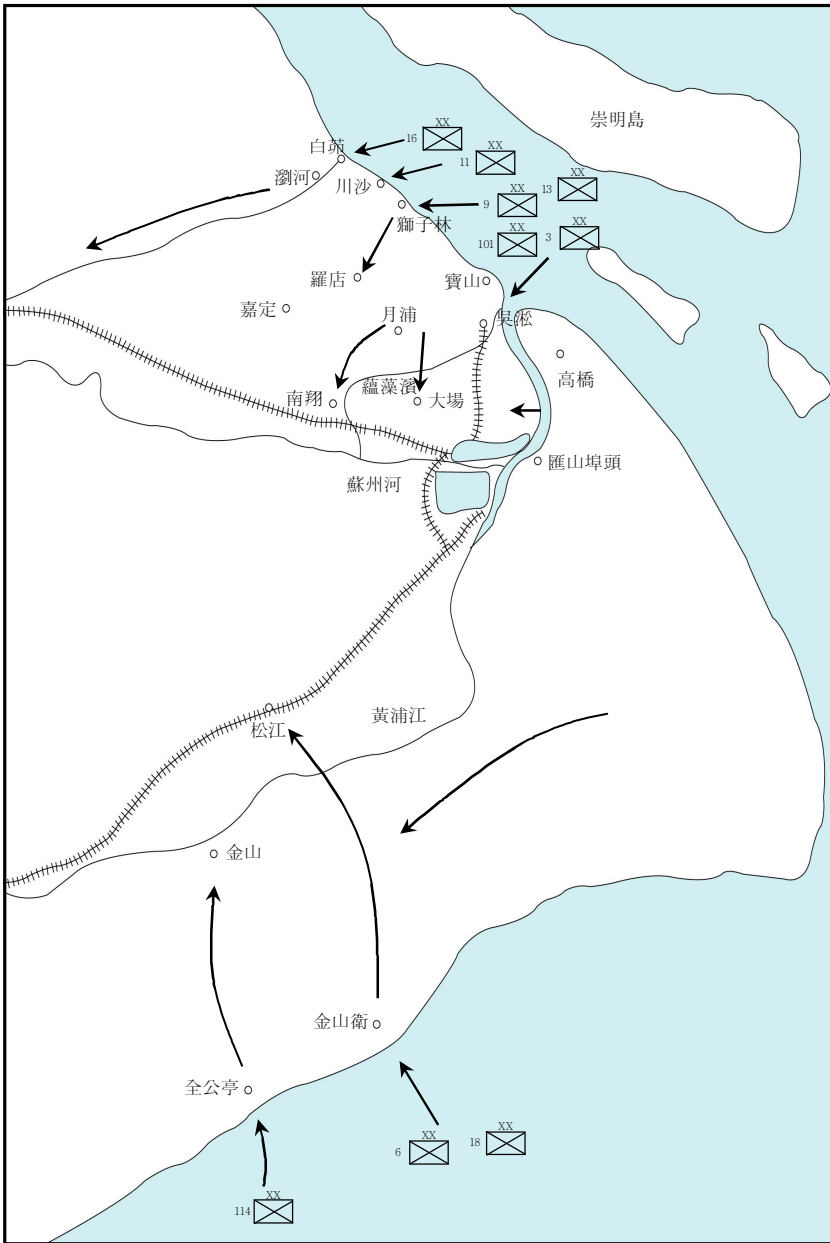
공격할 수 있느냐 공격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격이 필요하나 필요하지 않느냐의 문제다. 적이 남구를 공격하려 하고 동시에 우리 또한 반드시 방어하고자 하니 화북에서 전투는 확대되어 이미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만약 적이 화북에서 우세해 진다면 반드시 그 기동부대를 이용 평한선을 따라 남하하여 곧바로 무한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무한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중국전장은 종심이 2개로 끊어져 우리가 불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滬甌전장을 확대하여 적을 송호전장에 끌어들이 수만 있다면 25년(1936년)의 예정된 전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⁶⁶⁾

진성의 보고를 받은 장개석은 “공격! 공격! 반드시 공격해야지!(打!打!一定打!)”라고 대답했다. 진성은 다시 장개석에게 “만약 공격해야 한다면 상해로 병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고, 장개석은 진성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민정부 중앙군의 상해로의 증원을 지시하였다.⁶⁷⁾ 장개석의 상해증원 결정으로 상해에서 중국과 일본의 대규모 격전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면 국민정부의 상해 확전 의도는, 대만 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애초부터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일본군의 작전선을 중국군에게 유리한 동쪽에서 서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⁶⁸⁾이 아니라, 일본군의 전력을 화북과 화동으로 분산시켜 국민정부군이 내선의 입장에서 작전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66) 何智霖 編輯, 『陳誠先生回憶錄』(台北: 國史館, 2004), p.53.

67) 同上.

68) 蔣緯國 總編, 『國民革命戰史』第3部 第1卷, p.3; 吳相湘, 『第二次中日戰爭史』, p.392.



〈그림 2〉 上海작전

8월 23일부터 상해전역은 제2단계로 진입하였다. 사실 일본 본토의 증원군이 도착하기 이전 일본 해군육전대는 10배 이상의 중국군과 대치하여 고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일본군 제3사단의 약 절반 정도의 병력과 제11사단은 긴급동원상태로 일본 본토를 출발하여 23일에 상해에 도착하였다. 일본군 중앙통수부는 도착한 부대들을 홍구·보산·나점의 세 곳으로 분산시켜 상해 이북을 포위 점령하려 했다. 23일 제3사단은 吳淞棧橋 부근에, 제11사단은 오송 서북 15km 지점의 川沙鎮 북방에 각각 상륙하여 교두보를 확보한 후 중국군과 전투에 돌입하였다.⁶⁹⁾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중앙군을 포함하여 애초에 陝西·四川·雲南·貴州·廣東·廣西 등에서 화북으로 이동시키려고 했던 부대들을 화동인 상해 지역으로 전환시켰다. 상해 제3전구에 할당된 병력은 총 20만 명이였다. 국민정부군의 증원으로 본토에서 증원된 일본군 상륙부대는 중국군의 격렬한 저항을 받아 전진이 매우 곤란하였다. 당시 독일군사고문단장 팔켄하우젠(Alexander von Falkenhausen)은 상해전역을 시찰한 후 8월 29일 장개석에게 상해전장 상황은 “비록 완전히 적을 축출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곳곳에서 수비를 한다면 적이 전진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보고를 하였다.⁷⁰⁾ 따라서 당시 상해전투 상황은 일본군이 1차로 증원을 했지만 중국군이 효과적으로 잘 방어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상륙 포위작전이 실패하자 일본군 중앙통수부는 9월 7일에 시게후지(重藤) 지대(1개 여단규모)를 대만에서, 9월 10일에 제9·제13·제101사단과 야전중포병 제5여단 등을 일본 본토에서 추가로 증파하기로 결정하였다.⁷¹⁾ 9월 18일부터 상해사변은 3단계로 진입하였다.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 상해파견군 사령관은 목표를 大場鎮 부근으로 두고 우측부터 제9사단, 제3사단, 제101사단을 배치하고, 제13사단을 군 예비로 하여 10월 8일부터 蘇州河선을 향하여 총공격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였다.

69) 秦郁彦, 『日中戰爭史』, p.280.

70)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第二編 作戰經過(二), p.181.

71) 秦郁彦, 『日中戰爭史』, p.280.

일본이 재차 대규모 병력을 증파하자 장개석도 중국군 제9·제15·제8의 3개집단군과 제10·제19·제21의 3개집단군을 상해로 증원시켰다. 이후 劉(行)羅(店)도로·蘊藻濱·大場 및 蘇州河 연안에서 중·일 간에 격렬한 전투가 진행되었다. 26일 일본군은 대장을 점령하였고 곧이어 소주하 도하를 강행하였다. 중국군도 강력하게 저항하여 이 지역에서 10여 일간 쟁탈전이 반복되었다. 이때 각 師의 방어 정면이 불과 1.3km 정도로 과도하게 밀집된 중국군은 일본군의 집중포화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⁷²⁾ 하지만 일본군 또한 중국군의 방어선을 쉽게 돌파하지는 못했다.

일본군 중앙통수부는 상해전선의 교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0월 20일 제18·제24사단과 화북에서 이동한 제6사단 등을 편조하여 야나가와 헤이스케(柳川平助)를 사령관으로 하는 제10군을 편성 남하시켜 상해 파견군을 지원토록 함과 동시에 제16사단을 장강 상류의 白筍江 방면에 상륙시켜 상해부근 및 太湖 부근 소택지대의 중국군을 세 방향에서 포위 섬멸하도록 지시하였다.⁷³⁾ 결국 화북에 투입되었던 일본군 제6·제16사단은 화동으로 전용되어 화북의 일본군은 7개 사단으로 2개 사단이 감소되었고, 오송·상해의 일본군은 9개 사단으로 증강되었다. 따라서 상해전투를 확대하여 화북의 일본군을 화중에 끌어들이려 했던 국민정부군의 전략의도는 일부 달성되었다.

이후 11월 9일까지 상해전투는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 11월 5일 여명에 일본의 제10군 예하 제6사단 및 제18사단은 공중 엄호 하에 항주만 북안의 金山衛 일대에 상륙했다. 중국군은 이 지역에 일본군이 상륙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나중에 긴급하게 지원군을 보냈으나 이미 일본군은 교두보를 구축한 상태였다. 일본군은 신속히 松江·楓涇지역을 점령한 후 황포강을 도하하여, 오송·상해지역에서 소주하를 도하한 일본군과 협조하여 상해를 양측에서 협공하는 태세를 취했다.

한편, 상황이 악화되자 중국 제3전구 지휘부는 11월 8일 야간에 상해를

72) 劉大年·白介夫 編, 『中國復興樞紐-抗日戰爭의 八年』, p.37.

73) 秦郁彦, 『日中戰爭史』, p.282.

방어하는 각 부대에 뤄(현재의 蘇州)-福(山)선으로 방어선을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부대들은 장기간에 걸친 고전에 소모가 심했고 이동시기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준비가 부족하여 후퇴상황은 극히 혼란하였다. 예를 들면 제3전구의 주력인 제9·제19집단군은 철수도중에 일본 항공기의 폭격을 받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⁷⁴⁾ 결국 일본군은 11월 12일 상해를 점령했다.

장개석은 11월 중순 남경에서 3차례의 참모회의를 열어 남경방위문제를 토론했으나, 사실 이때에는 이미 남경의 군사전략적 가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상징성과 정치적인 면에서는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남경은 국민정부의 수도였으며, 손중산의 묘가 있었고, 만약 아무런 저항 없이 남경을 포기한다면 국가를 위해 끝까지 희생해서 싸워야 한다는 장개석의 주장과도 모순되기 때문이었다.⁷⁵⁾ 국민정부는 남경이 지형적으로 방어하기에 용이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정치적 이유 때문에 남경방어를 결정했다. 남경전투는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10일간 진행되었으나, 이 전투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군사전략적인 면에서 큰 의미를 찾기 어렵고, 또한 남경전투와 남경대학살에 관해서는 참고할 만한 여러 논저에서 이미 상세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국민정부군의 화동전역은 전반적인 작전경과를 볼 때 방어작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화북전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화북에서 국민정부군은 단계별 전방방어를 실시했지만, 화동에서는 일본군이 상해에서 공격하자 곧바로 반격으로 전환하는 공세적방어를 실시했던 것이다. 비록 이러한 공세적방어 개념을 적용한 국민정부군의 반격작전이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국민정부군이 상해에서 전장의 주도권을 획득

74) 중국군은 상해에 총 70만여 명을 투입했는데, 그 중 27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반면, 일본군은 총 28만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4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秦郁彦, 『日中戦争史』, p.281; Lloyd E. Eastman, *The Nationalist Era in China, 1927~194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120.

75) Hans J. Van de Ven, *War and Nationalism in China 1925~1945* (New York: RoutledgeCurzon, 2003), p.217.

하여 이후 3개월간 상해를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사실 장개석 자신도 상해에서 일본군을 격멸시킬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상해에서의 목적은 “지구전과 소모전으로써 적의 속전속결의 기도를 좌절시키는 것”이라고 언급했었다.⁷⁶⁾

4. 南京陷落 이후 遲延作戰으로 전환

(1) 戰時體制의 정비와 作戰方針의 변경

노구교사변 후 반년이 지난 시점인 1937년 말에 이르러서는 이미 전쟁은 전 중국으로 확대되었다. 남경을 점령당한 국민정부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았고 3개월이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던 일본의 환상은 붕괴되었다. 1937년 말 일본은 이미 16개 사단 50만의 병력을 중국 대륙에 파병하였으며, 전술적으로는 연속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었으나 전략적으로 국민정부군의 주력을 섬멸하지 못했다. 점령지역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점과 점들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언제라도 중국군의 유격전술에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⁷⁷⁾

그러나 중국의 상황도 좋은 편은 아니었다. 국민정부가 지구소모전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소련과 미국 등을 포함한 서구 강대국의 개입이었다. 하지만 전쟁초기의 국제관계는 오히려 중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아직까지 일본은 소련에 대한 전면전쟁을 시작하지 않았고, 미국·영국 등도 중립정책을 표방하고 있었다. 비록 영국과 미국이 일본의 군사행동을 국제조약과 不戰조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지만, 미국과 영국은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군수품과 전략자원을 계속 일본에 수출하고 있었다. 그리고

76)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第二編 作戰經過(一), p.44.

77) 秦郁彦, 『日中戰爭史』, p.287.

1930년대부터 군사적·경제적으로 중국에 접근했던 독일도 일본과의 정치적 이익을 중요시하여 전쟁개시 후 중국과의 관계를 후퇴시켰다.

당시 국민정부에 우호적이었던 국가는 소련뿐이었다. 소련은 일본이 對中전쟁을 끝낸 후 對蘇작전을 감행할까 우려했기 때문에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에 전쟁 물자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⁷⁸⁾ 따라서 국민정부는 국제적 상황이 변화될 때까지는 단독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국제환경의 열악함 속에서 전쟁을 지속해야 했던 국민정부는 남경합락 이후 일본이 불확대방침을 유지하여 1938년 3월까지 전선에서 잠시 소강상태가 유지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전구를 재편하고 전시체제를 정비하고자 했다. 중국군은 화북과 화동의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중국의 주요지역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사실 중국군의 전구 및 작전부대의 재배치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대재편보다 더 급박한 문제는 지휘체계의 확립이었다. 전쟁 발발 이후 중국군은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용감하게 전투에 임했다. 그러나 지방군에 대한 국민정부군 중앙지휘부의 통제는 미흡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쟁초기 일부 지방군 고위 지휘관들은 자신의 부대전투력을 보존하고자 중앙의 지시에 불복하고 임의대로 철수를 하는 등 군기문란 사태를 가져왔다. 이러한 군기문란 사태는 의심할 여지없이 최전방에서 협조된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부대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왔고, 전체적인 작전을 지휘하는 중앙지휘부의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작전을 진행시킬 수 없었다.

전쟁초기 화북에서 지휘통제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한 장개석은 1938년 1월 11일 개봉에서 제1·제5전구 단장 이상의 지휘관회의를 개최하여 중국군의 가장 큰 패배원인중의 하나로 고위 장교들의 군기 부재와 명령 불복

78) 1937년 12월에 소련은 115mm 포 80문, 76mm 박격포 100문, 37mm 대전차포 80문, 경기관 총 900정, 비행기 62대 및 대형폭탄과 더불어 비행승무원과 교관 등을 지원해 주었고, 1938년 1~2월간에는 항공기 약 200대 및 20개 보병사를 무장할 수 있는 무기·장비 및 탄약 등을 제공해 주었다. 郭汝瑰·黃玉章, 『中國抗日戰爭正面戰場作戰記』(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002), p.661.

종을 들었다.⁷⁹⁾ 장개석은 군기쇄신 차원에서 회의 당일 평한·진포선 작전에서 명령을 위반한 한복구를 면직시켜 무한으로 보낸 다음 2주 후에 처형하였다. 그 외 화북작전간 중앙지휘부의 명령에 불복종했던 旅長급 이상 41명의 고위 장교들도 모두 처형하였다.⁸⁰⁾ 동시에 장개석은 군사위원회 조직을 일부 개편하면서 참모총장이 가지고 있던 군령권을 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귀속시켜, 그 자신이 직접 예하부대에 군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⁸¹⁾

한편, 화북과 화동의 연속적인 패배로 화중의 무한지역이 일본군의 직접적인 공격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으므로 국민정부군 지휘부는 1938년 1월 17일 다음과 같은 새로운 작전지침을 하달하였다.

국군주력을 무한 외곽 및 하남·안휘 변구에 배치하고 적극적으로 정돈 보충하고, 화북 및 강남에서 有力부대를 차출하여 魯中 및 淮南을 증원하여 적극적으로 교란 및 습격하고, 적 주력을 진포로 방면으로 유인하여 적군이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 서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지연시킨다. 동시에 화북에서 광범위하게 유격전을 전개하여 적을 견제하고 소모시킨다. 남쪽으로 황하를 도하하여 곧바로 무한으로 진격하는 것을 방해한다.⁸²⁾

위와 같은 국민정부군의 의도는 무한방어를 위한 시간을 획득할 목적으로 진포로 방면으로 일본군을 유인하여 지연전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정부군의 작전목적이 애초 일본군의 공격을 저지·격퇴하는 것에서 전투력 보존, 시간 획득 그리고 일본군의 유인 등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경합락 이후 국민정부군의 작전방침은 전쟁초기의 '방어작전'에서 '지연작전'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상기의 작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위원회는 중국군의 전투편성 및

79) 蔣總統思想言論集編集委員會 編, 『蔣總統思想言論集』 卷14, pp.60~63.

80) 郭汝瑰·黃玉章, 『中國抗日戰爭正面戰場作戰記』, p.665.

81) 何應欽, 『八年抗戰之經過』(台北: 文海出版社, 1972), p.49.

82) 蔣緯國 總編, 『國民革命戰史』 第3部 第4卷, p.41.

작전지역을 대폭 조정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전구에 비해 제1·제5전구의 병력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연작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민정부군 중앙지휘부가 작전중심을 서주부군을 담당하고 있는 제1·제5전구로 전환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1> 중국군 전투편성 및 작전지역⁸³⁾

구분	제1전구 (程潛)	제2전구 (閻錫山)	제3전구 (顧祝同)	제4전구 (何應欽)	제5전구 (李宗仁)	제8전구 (蔣介石)
작전 지역	平漢線· 隴海線	山西	蘇南, 浙江	兩廣	津浦線	甘, 寧, 青
부대 규모	27개 보병사/여, 2개 기병사	30개 보병사/여, 3개 기병사	30개 보병사/여	11개 보병사/여	30개 보병사/여	9개 보병사/여, 4개 기병여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다시 추가로 제5전구로 병력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1월 23일 제5전구에 “진포로 남단 전방으로 전진하는 적에 대해 반드시 徐(州)·蚌(埠) 두 지역을 고수해야 한다. 명령없이 철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작전방침을 하달하였다.⁸⁴⁾ 2월 3일 제5전구는 “전구는 진포 남단의 적과 결전을 취하여 회하 이남지역에서 (적을) 저지한다. 그 측방을 지속적으로 타격하여 점차 추출하여 적을 소탕하고, 동시에 魯南 산지를 견고히 한다. 진포 북단 및 농해 동단에 대해서는 측면에서 공세를 취하여 적의 남하나 서쪽 방면으로 진출을 견제함으로써 서주를 지킨다”라는 작전지침을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⁸⁵⁾ 이러한 제5전구의 작전지침은 군사위원회의 작전방침과 일치하는 것으로 국민정부군 중앙통수부의 의도가 예하 사령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장개석이 전시체제 정비차원에서 실시한 한복구 등의 명령불복종자의 처벌이 국민정부군의 군기쇄신에 일정 정도 효과를 발휘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3) 同上書, pp.32~41의 내용을 도표화 함.

84) 蔣緯國 總編, 『國民革命戰史』第3部 第5卷, pp.121~122.

85) 同上.

(2) 台兒莊·徐州의 內線作戰

국민정부의 상해 확전 목적이 일본군을 화동으로 끌어들여 중국이 내선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전쟁을 수행하려 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전쟁초기 국민정부군의 그러한 의도가 실제 중요하게 적용되었던 곳이 서주전역이다. 내선작전은 신속한 기동, 집중 및 분산의 이점을 획득하고 양호한 통신, 짧은 병참선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 포위태세로 오는 적과 대적하고자 하는 작전의 형태이다.⁸⁶⁾ 당시 일본은 화북과 화동으로 병력이 양분되어 있었고, 중국은 서주와 무한을 중심으로 한 화중에 병력이 집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세는 이미 국민정부군이 전략적으로 내선 상에 위치해 있었음을 의미한다.

지금의 江蘇省 북서부에 위치한 서주는, 山東·河南·安徽·江蘇 4省의 교통 요충지로 전쟁 당시 天津-浦口를 연결하는 북-남 방향의 진포철도와 서쪽의 西安과 동쪽의 海州를 연결하는 농해철도의 교차점에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만약 일본이 서주를 공략하여 점령한다면, 일본은 해주의 連雲港을 통해 일본 본토로부터 병참지원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진출하고 있는 일본군의 측방을 보호할 수 있었다.

서주의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 때문에 국민정부군 수뇌부는 전쟁 이전부터 서주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었다.⁸⁷⁾ 프레메리(de Fremery)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수년 전부터 일본이 북쪽에서 남경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전쟁 발발 이전 국민정부군의 군사학교에서는 이러한 주제가 열심히 토론되었고 많은 참모들이 서주 주변으로 견학을 다녀갔다.⁸⁸⁾ 전쟁 당시 팔켄하우젠도 서주 방어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1938년 2월 9일 무한은 직접적으로 방어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蚌埠·徐州·安陽 등의 지역에서 방어가 필요하다고

86)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대전: 육군교육사령부, 2006), p.159.

87) 蔣緯國 總編, 『國民革命戰史』第3部 第5卷, pp.121~122.

88) "de fremery, Report No. 10", Ger Teitler and Kurt W. Radtke ed., *A Dutch Spy in China: Reports on the Phase of the Sino-Japanese War(1937~1939)*

언급했다.⁸⁹⁾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서주를 방어하기 위해 이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집중했다. 1938년 1월 이 지역에는 최소한 15만 명의 병력이 광서 군벌 이종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본격적인 서주작전 이전에 국민정부군에게 승리를 안겨준 태아장 전투가 먼저 발생하였다. 태아장은 서주 동북 30km의 대운하 북안에 위치해 있다. 철도의 지선이 북으로는 진포선에 남으로는 농해선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서주 북부의 요충지라 할 수 있다. 3월 5일 이종인은 장개석에게 일본군 15만 명이 산둥성 및 동남부 진포로 북단에서 서주를 공격하기 위해 동서로 양분하여 남하하고 있으므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⁹⁰⁾ 장개석은 이종인의 증원 요청에 따라 탕은백과 손연중에게 부대를 제5전구 지역으로 이동시켜 이종인을 도와주도록 했다.

하지만 증원된 정예 제20군단을 운용하는 방법에서 이종인과 탕은백의 의견은 달랐다. 탕은백은 3월 14일 장개석에게 보내는 전보에서 “이종인이 정면을 방어하고 있는 방병훈 부대의 노출된 측방을 엄호하기 위해 제20군단을 분산시켜 각 전투에 즉각 투입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본인의 생각은, 제20군단을 집중해서 운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그는 “병력의 분할은 전투력이 분산되고 지휘 면에서도 곤란하다. 만약 방(병훈)에 대한 증원이 필요하다면 본 군단의 전 전력을 사용하여 그 방향으로 출동해야 한다. 만약 자잘하게 구멍을 때운다면 戰勢에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투력은 대가 없이 소모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⁹¹⁾ 결국 제20군단은 탕은백의 의견대로 전력을 집중해서 운용하게 되었다. 제20군단의 3개 사는 嶧縣 동쪽으로 우회하여 등현 이남에서 역현 간의 일본군을 측면에서 공격하기 위해 이동시켰고, 2개 사는 역현 방면에 배치하여 일본군을 속이기 위한 佯攻작전을 폈다.

3월 중순 산둥성 제2군 정면에서 진출한계선을 넘어 전진하고 있던 일본군 제5사단과 제10사단의 일부가 중국군과 교전 끝에 퇴각하는 사건이 발

89)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第二編 作戰經過(二), p.252.

90) “李宗仁致蔣介石密電”, 『抗日戰爭正面戰場』上, p.631.

91) “湯恩伯致蔣介石密電”(1938. 3. 14), 同上書, p.634.

생하자, 이전부터 남하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제2군은 3월 13일 제10사단 세야(瀨谷) 지대와 제5사단의 사카모토(坂本) 지대에 전진을 지시하였다.⁹²⁾ 3월 17일 臨城을 점령한 세야 지대는 3월 23일 태아장에 돌입하여 중국군과 교전에 들어갔다. 그러나 강력한 포병화력과 견고한 진지를 근거로 한 중국군에 의해 저지당했고, 제2군 사령부는 긴급히 沂州에 있던 사카모토 지대에 세야지대를 증원하라고 지시하였다.⁹³⁾ 하지만 사카모토 지대 역시 태아장 동쪽에서 중국군에 저지당하였다. 세야지대는 중국군과 교전 끝에 4월 3일 태아장을 점령했지만, 결국 외부 증원이 차단되어 고립되었다. 그 뒤 중국군의 집중공격을 받은 세야지대는 큰 피해를 입고 4월 6일 야음을 틈타 嶧縣·棗莊 방면으로 퇴각하였다.⁹⁴⁾

태아장 전투는 항전초기 국민정부군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최초의 대승리였다. 이 전투에서 중국군은 방어전과 진지전이 아닌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공격작전을 실시하여 성공하였는데 전술의 중요성과 협동작전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준 전투였다.⁹⁵⁾ 사실 지금까지 태아장 전투 승리에 대한 공훈은 대부분 전구 사령장관인 이종인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태아장 전투에서 이종인과 탕은백의 부대 운용개념은 달랐고, 전투력을 분산하여 운용하자는 이종인보다 전투력을 집중하자는 탕은백의 의견이 더 타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태아장 전투의 승리 원인은 단순히 전술 면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태아장 전투가 한참 진행 중인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국민정부는 무한에서 임시 전국대표회의를 개최하고 있었다. 이 회의 기간에 장개석에게는 정치적으로 일본군에 대한 중국군의 승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었다. 장개석은 만약 태아장이 상실된다면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탕

92)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支那事變陸軍作戰』 2, p.32.

93) 秦郁彥, 『日中戰爭史』, p.289.

94) 1938년 6월 북지나방면군의 보고 자료에 의하면 2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제5·제10사단은 1만 2,984명의 피해를 입었다.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支那事變陸軍作戰』 2, p.41.

95) 石島紀之, 『抗日戰爭』, 藤原彰·今井清一 編著, 『太平洋戰爭史』 2(東京: 青木書店, 1988), p.199.

은백의 제20군단 장병과 제5전구 사령장관 이종인, 부참모총장 백승희 등을 비롯하여 작전책임자 모두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⁹⁶⁾ 이러한 장개석의 강압적 표현은 한복구가 처형된 시점에서 공언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결국 중국군은 작전한계선을 초월한 세야 지대를 고립시켜 포위 공격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고, 태아장 전투의 승리는 크게 선전되어 중국인의 항전의식을 고무시켰다.

한편,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제5전구를 증강시켜 일본군의 역량을 소모시키는 한편, 일본군의 주력을 서주로 유인하여 무한 방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총 64개 사(여) 60만여 명을 서주지역에 투입하였다.⁹⁷⁾ 4월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제5전구에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

국군은 서주를 확보할 목적으로 진포철도 및 沂河에서 남하하는 적을 확실하게 저지하는 한편 有力부대로 적의 측후방을 위협하고, 臨沂·費縣·滕縣 선상에 상당량의 병력을 집결시킨 이후, 주력을 남쪽으로 전환하여 공세를 취해 적을 섬멸한다. 부득이시에는 축차적으로 저항하면서 洪澤湖·微山湖 중간지역으로 철수하여 방어한다.⁹⁸⁾

이러한 군사위원회의 작전방침을 근거로 제5전구는 5월 12일 예하부대에 “전구는 적이 분산된 틈을 이용 병력을 집중하여, 淮北의 적을 격파하고 다시 기타 방면으로 병력을 전환시켜 적을 각개 격파한다”라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⁹⁹⁾ 군사위원회의 작전방침과 제5전구의 작전목적은 토대로 볼 때, 서주작전에서 국민정부군은 우선 북쪽에서 일본군을 견제 및 저지하고 그 사이에 남쪽으로 주력을 집중하여 이 방향의 일본군을 먼저 격멸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국민정부군의 전략은 적이 외선 상에 분산되어 있을 때 내선상의 아군 병력을 먼저 한 방향에 집중하여 그 방면의 적군을 격파한 후 최대한 신속히 다른 방향으로 부대를 이동시켜

96) Hans J. Van de Ven, *War and Nationalism in China 1925~1945*, p.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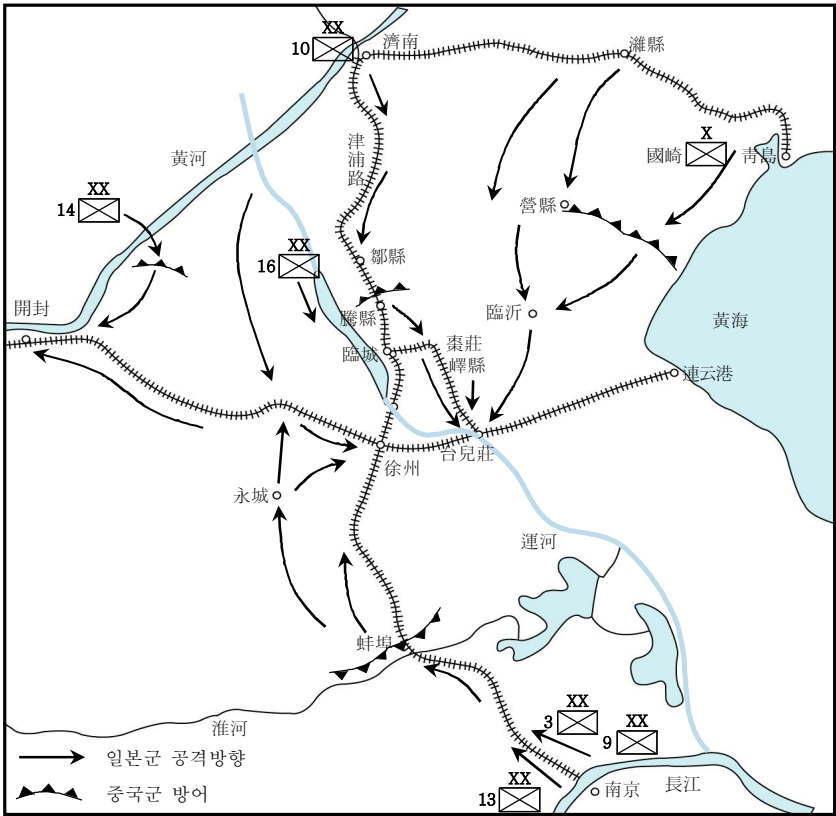
97) 蔣緯國 總編, 『國民革命戰史』第3部 第4卷, p.41.

98) 『抗日戰爭正面戰場』上, p.623.

99) 蔣緯國 總編, 『國民革命戰史』第3部 第5卷, p.156.

대응한다는 내선작전의 기본개념을 채택한 것으로 상해 확전 당시 진성이 장개석에게 건의했던 내용이었다.

한편, 태아장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서주지역에 대규모의 중국군 부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월 7일 일본 대본영은 서주에서 중국군을 포위 섬멸하기 위해 북지나방면군을 주력, 중지나과견군을 조공으로 편성하고, 북지나방면군 4개 사단은 농해연선에서 공세를 취하여 적을 격파하고 중지나과견군 2개 사단은 북지나방면군의 작전과 보조를 맞추어 진포로 선상에서 중국군의 퇴로를 차단하라고 지시하였다.¹⁰⁰⁾ 이 서주작전에 투입된



<그림 3> 徐州작전

100)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支那事變陸軍作戰』 2, pp.45~46.

일본군은 총 8개 사단 약 16만 명의 병력으로 북지나방면군 5개 사단(+), 중지나파견군 2개 사단(+)으로 구성되었다. 북지나방면군은 4월 하순부터, 중지나파견군은 5월 5일부터 각각 작전행동을 시작하여 서주를 향해 전진, 농해선을 중심으로 포진한 중국군의 방어진지를 돌파하였다. 일본군은 5월 15일과 26일 사이에 서주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하였다.¹⁰¹⁾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일본군이 서주에 대한 대규모 포위공격을 실시하려 한다는 것을 파악한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5월 15일 서주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¹⁰²⁾ 5월 16일 제5전구 사령장관 이종인은 예하부대에 서남 방면으로의 포위돌파 명령을 하달했다.¹⁰³⁾ 5월 하순 중국군은 소부대 단위로 일본군의 포위를 돌파하여 하남·안휘의 산지에 도달하였다. 일부 부대는 江蘇의 북부·산동의 중남부에 잔류하여 유격전을 전개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민정부군은 애초 서주지역에서 내선의 이점을 활용한 공세적 방어를 실시하려고 했다. 하지만 일본군이 생각보다 많은 병력을 서주지역에 투입하였고 또 그 진격속도도 빨랐기 때문에 계획했던 작전을 실행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일본군도 서주에서 국민정부군 주력을 포위 섬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은 점차 장기전 양상을 띠어갔다.

(3) 武漢의 遲延戰

漢口·漢陽·武昌 이 세 곳을 통칭해 武漢이라고 한다. 지리적으로 漢口는 수로와 육로의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있어 예로부터 상업이 번성하였고, 漢陽은 군수산업 중심지로 제철소, 병공창, 화약창 등이 있었으며, 武昌은 정치 중심지로 남북을 연결 및 통제하고 있었다.¹⁰⁴⁾ 남경함락 이후 국민정부가 중경으로 천도하였으나, 지리·교통·산업면에서 보았을 때 무한은 사실상 국민정부의 군사·정치·문화 중심지였다. 이러한 무한의 전략적 중요

101) 蔣緯國 總編, 『國民革命戰史』第3部 第5卷, pp.149~151.

102)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第二編 作戰經過(二), p.266.

103) 蔣緯國 總編, 『國民革命戰史』第3部 第5卷, p.162.

104) 虞奇, 『抗日戰爭簡史』上冊(台北:黎明文化事業公司, 1975), p.249.

성 때문에 일본은 서주를 함락시킨 후 전략중점을 화중의 武漢을 공략하는데 두었다.

일본 대본영은 남경을 점령한 후 漢口 공략작전과 보급로를 단절하기 위한 廣東 공략작전을 계획했으나 1938년 초 전면불확대방침으로 이러한 작전준비는 중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서주작전 실시결정과 함께 대본영 육군부는 한구 공략작전을 재검토하여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구작전을 실시하는데 추가적인 병력과 예산이 소요 되었음에도 대본영이 한구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한구 공략작전을 전쟁종결의 최대 기회로 삼고자 했기 때문이다.¹⁰⁵⁾ 그러나 병력면에서 중국군과 비교해 서주작전과 같은 대규모 포위공격은 가능하지 않았으므로 일본 대본영은 작전목적은 무한지역 점령을 주로 하고 중국군의 격멸은 부차적인 것으로 하였다.¹⁰⁶⁾

한편,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일본군이 진포선을 개통한 이후에는 정주 및 무한을 차기 작전목표로 할 것을 예상하고 무한을 중심으로 한 방어계획을 구상하였다. 군사위원회는 무한 주위에 험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원거리에서부터 방어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주력을 무한 외곽에 집중하여 鄱陽湖·大別山의 장애물 및 장강 남안의 구릉 및 호수와 늪지대를 이용한 '持久戰'을 수행하여 일본군을 최대한 소모시키기로 하였다.¹⁰⁷⁾ 이러한 작전목적 달성을 위해 군사위원회는 정잠의 제1전구 주력으로 信陽 이북·平漢線 이서를 방어하고, 이종인의 제5전구 주력으로 무한 이북의 대별산구를 방어하고, 진성의 제9전구로 장강 이남과 무한을 방어하도록 했다.¹⁰⁸⁾ 중국군은 약 47개 군 120개 사로 총병력은 100만여 명이었고, 항공기 200여 대, 함정 30여 척이 이 작전에 투입되었고, 일부 소련 공군지원대도 참가했다.¹⁰⁹⁾

105) 『防衛廳防衛研究所戰史室, 『支那事變陸軍作戰』 2, p.86.

106) 秦郁彦, 『日中戰爭史』, pp.292~293.

107) 『抗日戰爭正面戰場』 上, pp.711~713; 蔣緯國, 『蔣委員長如何戰勝日本』(台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77), p.50.

108) 劉大年·白介夫 編, 『中國復興樞紐-抗日戰爭的八年』, p.50.

109) 王正華, 『抗戰時期外國對華軍事援助』(台北: 環球書局, 1987), pp.107~115.

일본군의 작전은 항공기지의 전방 추진을 목적으로 안경 및 구강을 각각 6월 12일과 7월 26일에 점령하면서 시작되었다. 장강 북쪽의 제6사단은 계속 서쪽으로 진격하였으나 太湖-宿松 간에서 국민정부군과 교전이 발생하여 8월 하순까지 서로 대치하였다. 이 사이에 일본군 주력 제11군은 집결을 완료하고, 廬州-六安 부근에 집결한 제2군과 협동으로 8월 하순 한구 점령을 목표로 전진을 개시하였다.¹¹⁰⁾ 장강 남안을 전진하는 제101사단과 제106사단은 南潯철도를 사이에 둔 廬山과 馬鞍山에 대한 공격을 실시하였으나, 중국군의 격렬한 저항으로 두 사단은 큰 피해를 입어 공격이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 상황을 고려한 제11군은 양 진지의 공략을 단념하고 제9사단, 제27사단 등의 예비부대를 서진시켜, 9월 7일부터 1주간의 격전 후 한구방위의 중요거점인 馬頭鎮 요새를 점령하고, 10월 27일 한구남방에서 粵漢線을 차단하였다. 한편, 제6사단은 9월 27일부터 한구방위의 최대거점인 田家鎮 요새를 공격하여 29일 이를 점령하였다.

대별산 방면으로부터 한구로 향한 제2군은 甲군(제3사단, 제10사단)이 대별산의 북방을 우회하여 固始와 光州를 경유하여 평한선 상의 信陽 방면으로 남하하였으나, 乙군은 대별산의 중국 중앙군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고 전진하지 못하였다. 갑군은 10월 12일 신양을 점령하고 26일에는 한구의 북쪽 교외에 돌입하였으며, 같은 날 한구 동쪽으로 돌입한 제6사단에 의해 한구는 완전히 점령되었다. 중국군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10월 중순에 각 방향의 일본군이 계속 무한으로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한의 지속적인 방어는 어려웠다. 결국 10월 21일 국민정부 군사위원회는 무한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전군을 무한 三鎮에서 철수시켰다.

한편, 일본군은 중국의 해상 수송로를 봉쇄하기 위해 화남 방면에 대한 작전을 병행하였다. 10월 12일 일본군은 대아만에 상륙하는데 성공하였고 21일에는 廣州를 점령했다. 일본이 광주를 쉽게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국민정부군이 무한 방어에 집중하느라 이곳의 일부 병력을 무한으로

110) 秦郁彦, 『日中戰爭史』, p.294.

차출시켜서 광동 연해의 방어가 매우 취약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국민정부군은 무한에서 축차적인 지연전을 실시한 결과 일본군을 2개월간 더 지연시킬 수 있었다. 무한·광동작전의 종결과 함께 전쟁초기의 전투는 일단락되었다. 노구교사변 발생 이후 약 17개월 동안 중국군과 일본군은 격렬하게 전투를 진행하였다. 1년 5개월간의 전투를 통해 국민정부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¹¹¹⁾ 전쟁초기 국민정부군의 군사전략에서 최대 의의는 일본을 장기전의 수렁 속으로 끌어들었다는 점일 것이다.

5. 맺 음 말

본고는 중일전쟁초기 방어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정부군 군 수뇌부의 전략의도와 각 전역별 작전형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고는 노구교사변 발발 당시 이 지역 책임자인 송철원과 장개석으로 대표되는 남경 중앙지휘부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장개석이 비록 對日타협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는 사변 초기부터 일본의 전면전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중앙군 일부를 화북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 반면, 송철원은 일본과 현지협정을 체결하는 등 對日타협에 주안을 두고 일본과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대일정책에 대한 불일치가 일본으로 하여금 일본 본토와 조선에서 화북으로 증원군을 파견할 시간을 획득할 수 있게 해 주었고, 초기 일본의 화북에서의 전장주도권 확보를 가능케 해 주었다.

일본은 화북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전면전을 감행함과 동시에 남북에서 협공하여 국민정부를 압박하고자 상해를 공격했다. 국민정부 대본영은

111)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일본군의 전사자는 4만 7,000여 명이었고, 중국군의 전사자는 37만 4,000여 명이었다. 森山康平, 『圖說日中戰爭』(東京: 河出書房新社, 2000), p.130; 何應欽, 『八年抗戰之經過』, 附錄 第三表.

애초 '지구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1전구를 주방어지대로 선정하였으나, 일본군이 화동에 병력을 증원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화북에 투입하려고 했던 중앙군 및 예비부대를 화동에 집중시켰다. 이러한 국민정부군의 전략상의 변화에 대해 일부 연구자 중에는 장개석이 상해에서 '사수'를 통한 결전을 추구했다고 주장한다.¹¹²⁾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개석은 국민정부군이 상해에서 일본군을 격퇴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장개석의 상해 확전 의도는 화북의 압력을 감소시키고 차후 내선의 입장에서 대일작전을 수행하려는 의도였다. 이는 초기 전과를 바탕으로 전쟁을 종결시키려고 했던 일본군의 의도와 상반되는 것으로 전쟁의 장기화 전략이었다.

국민정부군의 화북과 화동전역은 전반적인 작전경과를 볼 때 둘 다 방어 작전에 속하지만, 작전개념 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즉 화북에서 국민정부군이 단계별 전방방어를 실시했다고 한다면 화동에서는 공세적방어를 실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전술적인 면에서 국민정부군에게 착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화북에서 국민정부군은 각 방어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중심 상에서 결정적작전을 수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방어선별로 전투지역 전단에서 결정적작전을 실시하는 오류를 범했다. 또한 상해 방어시에 국민정부군은 너무 좁은 지역에 병력을 밀집시켜 일본군의 집중화력에 큰 피해를 자초했고, 정면방어에만 집중한 결과 일본군의 항주만 상륙 작전에 대비하지 못했다.

남경함락 이후 국민정부는 군기를 일신하는 한편 서주와 무한지역에서 지연작전을 실시하여 1938년 말까지 일본군을 화중지역에서 저지하였다. 대체로 전쟁초기 일본군은 강력한 화력과 기동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중국 동남해 연안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인 전투로 중국군을 붕괴 또는 굴복시킨다는 전쟁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전쟁초기 일본군의 속전속결전략이 실패했으며, 반대로 국민정부군의 전략방침이 대체로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12) Lloyd E. Eastman, *The Nationalist Era in China, 1927~1949*, pp.119~125.

1년 5개월간의 전투를 통해 국민정부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전쟁 초기 국민정부군의 군사전략에서 최대 의의는 일본을 장기전의 수렁 속으로 끌어들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만 연구자들이 주장하듯이 전쟁초기 국민정부군의 작전방침이 애초부터 북에서 남으로 향하는 일본군의 작전선을 중국군에게 유리한 동쪽에서 서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¹¹³⁾ 남경합락 이후 국민정부군의 작전방침이 방어작전에서 지연작전으로 전환된 것은 전쟁초기 화북·화동에서 국민정부군의 연속적인 패배로 인한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0. 12. 22, 심사수정일 : 2011. 1. 21, 게재확정일 : 2011. 2. 1.)

주제어 : 국민정부, 중일전쟁, 장개석, 군사전략, 전술, 국민정부군, 항전전략, 노구교사변, 상해사변, 지구전략

113) 蔣緯國 總編, 『國民革命戰史』 第3部 第1卷, p.3; 吳相湘, 『第二次中日戰爭史』, p.392.

<ABSTRACT>

The Strategies and Tactics of the War of Resistance of the Nationalist Army during the First Phase of the Sino-Japanese War Revisited, 1937~1938

Ki, Se-ch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efensive strategy in the early stage of the war, this study epitomize the strategic goal of the chief officers and operation types in each campaign. First, it examined how the Nationalist Army reacted as it confronted the threats of the Japanese since Marco Polo Bridge Incident. Then it analyzed the military operations of the Nationalist Army before-and-after the surrender of Nanjing.

First of all, this study focused on the dissidence of *Song Zheyuan* and *Chiang Kaishek*, the chief commanders in Nanjing headquarters. Although *Chiang Kaishek* did not at disregard the opportunity of the negotiation against Japan, he noticed the possibility of the all-out-war against Japan in the early stage of the Incident and therefore initiated military measures by deploying some of the Central Army to the North China. Meanwhile, *Song Zheyuan* actively negotiated with the Japanese by taking a real time pact. This discordant between the chief commanders in the headquarters and the providence allowed the time for the Japanese to dispatch additional military corps from Korea to North China, and therefore provided Japan took the initiative in the North China area in the early stage of the war.

Japan took dominating all-out-war in North China and at the same time attacked Shanghai in order to pressure the Nationalist Army from the both side of the south and the north. The Nationalist's Supreme command

decided 1st War Zone to be the main defensive line in order to prolonged war, but as he realized that the Japanese increased additional force to East China, he concentrated the Central Army and reserve to East China, which were originally commanded to deploy to North China. Regarding the change of the strategy of the Nationalist Army, some researchers declare that *Chiang Kaishek* was trying to battle against Japan with a desperate defense. However as mentioned earlier, *Chiang Kaishek* did not believe that the Nationalist Army was strong enough to defeat the Japanese in Shanghai. The true goal of concentrating forces in Shanghai was to diminish the pressure in North China and therefore to commence operations in the inner defensive lines later. This was the prolonged strategy contrast to the Japanese's quick war.

Regarding the overall military progressions, the deployment of the Nationalist Army in North China and East China is considered defensive operation, but there is definite difference in terms of the strategic concept. In fact, while the Nationalist army initiated the defence in the front step-by-step, it took offensive defense in East China. However, the Nationalist Army did not fail to confirm any errors in the military operations. In North China, the Nationalist Army should have operated decisive maneuvers at the depth of the coordinated defensive lines, but it actually committed decisive attack at each battle field. In addition, during the defensive operation in Shanghai, the Nationalist Army centralized the force in a limited area, which caused enormous damage from the enemy's concentrated-fires. It also concentrated the force only in *Shanghai*, and thus fail to prepare against Japanese's *Hangzhou* Bay landing operation.

Meanwhile, as the war progressed slowly after the fall of Nanjing till the march of the 1938, the Nationalist's supreme command tried to improve the military morale by punishing the officers with slackened discipline, and reorganized the troops with the new alteration of the operational tactics. In order to defense Wuhan, the Nationalist Army ordered to deploy their forces against the Japanese with the purpose of delaying the war, and applied a concept of offensive defense and guerilla tactics in addition to the regular operations. Hence, after the fall of Nanjing, the operation type of the

Nationalist Army altered from 'the defensive' to 'the delaying.'

According to the new operational tactics, the Nationalist Army incremented the force of the 5th War Zone to dissipate the power of the Japanese while earning the time to prepare Wuhan by leading the main power of the Japanese to *Xuzhou*. Before the operation *Xuzhou*, the Nationalist Army gained its first victory over Japan at *Taierzhuang*. The main factors of the victory were derived from taking the offensive attack instead of posing the defensive attitude and also from the troop's great desire for victory under the command of *Chiang Kaishek* to *Tang Enbo*, and *Li Zongren*. After the battle of *Taierzhuang*, the Japanese realized the existence of the Chinese force in *Xuzhou* and therefore implemented a comprehensive encirclement annihilation operations. The Nationalist Army tried to initiate the offensive-defense through the inner defensive line, but the Japanese sieged *Xuzhou* earlier than expected and hence the operation failed. However, as it delayed Japan in *Xuzhou*, the Nationalist Army indeed succeeded to earn time for Wuhan defense, and in the end achieved to delay the Japanese in Wuhan for the next two months.

Overall, until the end of the 1938 Japan succeeded to triumph over most of the battles with the intensive fire and quick maneuver, and occupied most of the cities along the south-east of the China. However, it failed to achieve to the definite goal of surrendering or annihilating the Chinese troops through the decisive attacks. In conclusion, it represents the failure of the Japanese's quick war, which implies the success of most of military tactics of the Nationalist Army. Although the damage was immense through the war for a year and five months, the Nationalist Army in fact succeeded to delay the Japanese attack, leading a war to the prolonged. However, as researchers from Taiwan indicates, the military tactics of the Nationalist Army was not intended to lead the Japanese force, which were heading from the north to the south, toward the west from the east for the benefits of the Chinese. The shift of the military strategy from the defensive operation to the delaying operation after the fall of Nanjing was considered to be inevitable due to the consecutive defeats of the Nationalist Army in North China and East China in the early stage of the war.

Key Words : the Nationalist, the Sino-Japanese War, *Chiang Kaishek*, Military Strategy, Tactics, the Nationalist Army, the Strategies of the War of Resistance, Marco Polo Bridge Incident, Shanghai Incident, the Prolonged Strategy

